

진도 울금 발효 간기능식품 만든다

한국인스팜 7년 연구 개발, 식약청 인정 획득

진도 울금을 발효한 건강기능식품 원료가 개발됐다. 27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화순의 한국인스팜(대표이사 오규철)은 발효 울금의 간기능 개선 활성을 확인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식품연구원 지원으로 전북대 임상센터에서 간

기능 개선 인체 적용시험을 실시해 발효 울금의 생리활성을 최종 확인했다. 이 업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지원을 받아 지난 2006년부터 진도울금농장과 전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전남전원자연연구원 등과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에

나섰다. 6년9개월 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발효 울금의 '간기능 개선 생리활성'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인정을 획득했다. 또 안정적 원료 확보를 위해 진도군과 울금 원료 공급에 관한 협약과 국내 마케팅을 위해 한국인스팜사라 이프엔진과 판매협약을 체결하고 해

외 수출을 위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국제상호인증 제품화 지원사업(본부장 박길중)으로 해외 인증을 준비 중이다. 한편 한국인스팜은 지난 1999년 화순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인정하는 '한국 우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KGMP)'을 획득해 130여 명의 종업원이 350여 품목의 천연물을 원

료 하는 완제의약품 생산, 전국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현재 비파나무 잎 추출물을 활용한 기억력 개선제 등 5건의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진행 중이다. 진도는 120여 농가가 44.5ha에서 연간 360여t의 울금을 생산, 80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대표적 주산지다. /오광기자 kroh@kwangju.co.kr



곡성 옥과농협, 대학생 등 49명에 장학금 4250만원

곡성 옥과농협은 지난 26일 농협회의실에서 관내 조합원 자녀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생에게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옥과농협은 이날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조합원 자녀 중에서 선발된 연세 김기훈(21)씨 등 대학생 36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옥과과 황현정

(17)양 등 13명에게 각 50만원씩, 모두 42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박상철 조합장은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장학사업은 꾸준히 지속될 것"이라며 "조합원들에게 힘이 되는 농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농촌 유휴인력 활용 용배수로·수문 정비 농어촌공사 구례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가 농업 기반 시설인 용·배수로와 수문 등의 정비에 농촌 유휴인력을 채용하면서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농가소득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27일 한국 농어촌공사 구례지사에 따르면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90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550명의 농업인들을 고용, 구례군 관내 8개 읍면의 용수로 11개소 39km, 배수로 15개소 50km, 수문 51개소 등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구례지사는 지난해에도 760여명의 농촌인력을 활용 사업을 추진했다. 유재욱 지사장은 "앞으로도 정비할 농업기반시설이 소개하고 있는 인근 주변마을의 주민들을 사업에 꾸준히 참여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기자 ik5826@



'별주부의 아름다운 선물' 무안 공연 27일 오전 무안송달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된 어린이 연극 '별주부의 아름다운 선물'의 출연진인 극단 연우랑 관계자, 김철주 무안군수,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 등이 공연 전 관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섬지역 건강지킴이 나선 여수보건소

진료반 구성 10월까지 주민 무료 의료봉사

여수시보건소가 관내 섬주민들의 의료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수백병원, 제일병원, 여수시약사회, 대한전립선학회 등과 손을 잡고 '섬 지역 건강 지킴이'로 나선다. 여수시보건소는 27일 "10개 섬 주민 1538세대 2976명을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등 7개 기관·단체 24명의 진료반을 구성해 오는 29일부터 연도 지역 208세대를 시작으로 올 10월 중순까지 무료 진료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건의료 순회 서비스를 통해 다문화 가정에 영양제와 건강용품 지원하고, 진료·투약, 침·뜸 등 양한방 진료, 치주질환 진단·신경치료 등 치과진료, 급성·치매예방·고혈압·당뇨 등 이동 건강교실 운영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

를 제공한다. 민간 참여기관인 여수백병원은 진료결과 여객 관할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들에게 무료로 수술을 해 줄 예정이다. 또 대한전립선학회에서는 10월 중 섬지역 주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전립선암 검진을 무료로 해 준다. 이밖에 안전사회에서는 시력 검사 및 돋보기 300개를 제공하며 치과기공사회에서는 틀니교정 등 사용법을 교육한다. 김용철 여수시보건소장은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섬 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 민간 통합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간 기능질환 등 복합질환 환자를 조기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수=임문택기자 mtlim@

무안군, 수역 횡령 기관 국가사업 추천 논란

시설장이 4억5000만원 꿀꺽 감사원 조사중 2011년 해송 불법 훼손 고발조치 당하기도

무안군이 정부예산 수역 원을 횡령한 혐의로 감사원 조사를 받고 있는 시설요양원을 국가공모사업기관으로 추천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된 이 업체는 무안군의 추천으로 최종 사업기관으로 선정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 A요양시설 시설장은 지난 2008년 5월부터 337차례에 걸쳐 4억5200만원을 횡령한 뒤 이를 자신의 부동산 채무 4억여 원을 갚는데 사용한 것

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관련 조사를 진행중이었다. 그러나 이 기간 무안군은 산림청의 '녹색복지공간 사업'에 이 요양시설을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지난해 8월 이 시설 명의의 공모에 나서고 같은 해 10월에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A요양시설은 지난달 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시설은 이 밖에도 지난 2011년 6

월 복지관 옆 부지인 7920㎡ 해안가 수십년생 아름드리 해송을 불법으로 훼손해 산지관리법위반혐의로 사업 처리된 바도 있어 녹색복지공간사업의 추진기관으로서 자격이 있는 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은 산림청 녹색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 무안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단지 소외계층 지원사업이 있다는 것을 요양시설에 알려준 사실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대불대 한 교수는 "법을 위반한 사람이 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장이 된다는 것은 관련 기관들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4개국 크루즈 16차례 여수 찾는다

이탈리아·홍콩·중·日 선사 관광객 3만5천명 방문 예상

오는 29일 이탈리아의 코스타 크로시에레가 여수 박람회장 국제여객선 터미널에 들어온다. 코스타 시에레를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홍콩, 중국, 일본 등 4개국의 크루즈가 16차례 여수를 찾는다. 여수시는 27일 "여수가 천혜의 경관과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로 인한 높아진 인지도 등으로 크루즈 여행객들의 새로운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선박 국적도 다양해지고 이들 유람선에 실려 여수를 찾는 관광객도 3만5000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중국 압웨이사

인센티브 크루즈 관광객 2만 5000명이 여수를 방문할 것으로 확대돼 여수의 크루즈 산업이 더욱 발전할 것이라는 게 시의 전망이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기간 동안에는 로얄캐리비안 크루즈 등 6개 선사의 크루즈가 12차례 입항한 바 있어 박람회보다 더 많은 크루즈가 여수를 찾게 됐다. 올해 입항예정인 크루즈는 이탈리아의 코스타 크로시에레(1회), 홍콩의 스타 크루즈(11회), 중국의 HNA(3회), 일본의 재팬 크루즈(1회) 등 4개 선사다. 시는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여수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관광해설사와 각종 홍보물을 지원할 방침이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순천 '귀농귀촌 기차여행' 상품 출시

다음달 25일 운영

순천시시는 27일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아름다운 도전! 순천 귀농귀촌 기차여행(이하 귀농귀촌 기차여행)' 1박2일 상품을 출시, 다음달 2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레일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귀농귀촌 기차여행상품은 지난 25일부터 예약을 받고 있다. 시는 지난해 처음 실시한 귀농귀촌 기차여행에 대한 호응이 좋아 올해는 10차례 운영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두부 만들기, 콩비지 쿠

키 만들기, 농산물 수확 등 농업농촌 체험 및 귀농귀촌 토크콘서트, 귀농선배와의 대화 등을 통해 귀농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접할 수 있다. 특히 오는 4월20일부터 순천만 일원에서 펼쳐지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도 관람할 수 있다. 귀농귀촌 기차여행은 다음달 25일부터 10월18일까지 10회 운행하며, 1회 20명 한정,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KTX 열차운임은 30% 할인받을 수 있으며, 정원박람회 입장권 또한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새로운 패러다임의 거침없는 뉴스쇼

TV조선
뉴스쇼

관

박은주
조선일보 문화부장

최희준
TV조선 취재에디터

김미선
TV조선 정치부 기자

월~금 밤 9시 50분 방송

대한민국 어디서나 채널 19번 TV조선